

# 은행권, 상반기 채용 '안갯속'… NH銀 외 공채계획 미정

취준생들 '차별' 자괴감에도  
은행권 입사 경쟁 여전할 듯

은행권의 채용비리 의혹으로 상반기 신규 채용이 미궁 속으로 빠졌다. 비대면 거래 급증으로 책상을 빼는 은행원이 늘고 있는데도, 채용비리 의혹에 따른 내부 혼란도 커졌기 때문. 이런 분위기에 취업 준비생도 입사를 망설이는 모양새다.

◆ 상반기 채용? "계획 없어"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등 6 대 시중은행 가운데 농협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상반기 채용 계획이 미정이다.

그동안 은행권은 2~3월께 상반기 채용 계획이 나왔으나 최근 비대면 거래 증가에 따라 채용 시장 한파가 불면서 하반기

<6대 시중은행 상반기 채용 현황>

은행	2017	2018
국민	X	미정·하반기 예상
신한	리테일서비스 직군(100명 규모)	미정·하반기 예상
우리	개인용서비스 직군(100명 규모)	미정·하반기 예상
하나	X	미정
기업	X	미정·3월 초 윤곽 나올 듯
농협	6급 직원(200명 규모)	6급 직원(350명) 채용 접수 완료

/각 사

채용에 집중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엔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 은행권이 채용문을 열었다가, 올해 채용비리 사태로 또다시 채용 시장이 경색됐다.

채용 비리 의혹으로 흥역을 치르고 있는 KEB하나은행은 올해 채용이 미정이다. 하반기에 채용한 직원이 배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압수수색 등 여건을 고려하면 신규 채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하반기에 공채를 진행하는 KB국민은

행은 상반기엔 채용 계획이 미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상반기에 개인금융서비스 직군을 채용했으나 올해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예년처럼 하반기 일반 공채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도 아직 올해 채용 계획이 나오지 않았으나, 보통 3월 말 채용 공고를 내는 만큼 3월 중 윤곽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가을 졸업 시즌에 맞춰 채용을 진행하는 신한은행도 채용 계획은 미정이다.

유일하게 상반기 채용을 진행한 NH농

협은행은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간 상반기 6급 신규직원 지원을 받았다. 일반 및 IT 분야로 나눠 실시했으며, 총 350명 정원이다.

◆ 취준생들 '나도 차별 받을까 무서워…'

취준생들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은행권은 비대면거래 증가로 매년 점포와 직원을 빠르게 감축하고 있음에도 '신의 직장'으로 불리며 입사 경쟁이 치열하다. 실제로 지난해 9월 53개 금융사가 공동으로 개최한 채용박람회에는 구직자 8000명이 방문하고 1300명이 현장 면접을 봤다.

그러나 올해 채용비리 사태가 불거지면서 취준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소위 '금수저'가 아니면 채용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한 금융권 취업 카페에서 취준생 A씨는 "지금부터라도 금융권 자료를 보면 공부를 시작해보려고 했는데 채용비리 뉴

스를 보니 암담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취준생 B씨는 "채용비리는 아무리 뉴스에 실려도 비리로 입사한 애들을 절대 못 자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선 취준생들의 입사 의지는 여전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은행)가 10조원 가량의 깜짝 실적을 내면서 성과급 잔치를 벌였기 때문. 아울러 이번 사태로 오히려 금융사들이 채용 시스템을 정비했을 것이라 우호적인 시선도 취준생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무리 채용 비리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도 취준생들이 지원을 안 할 것 같진 않다"며 "은행들도 바뀐 채용시스템을 설명할 테고 취준생들도 오히려 이번 일이 터졌기 때문에 추후엔 그런 차별을 받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 "전문성 토대로 과감·냉철하게 행동하자"

금감원 '새출발 결의대회' 개최  
최홍식 원장 등 350여명 참석

금융감독원이 최홍식 원장이 취임한 지 5개월 만에 조직 정비를 마무리하고 새출발을 선언했다.

최 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새출발 결의대회에서 "지금의 시대와 사회는 금감원에게 고도의 청렴성과 빈틈없는 업무처리 등 완전무결함을 요구한다"며 "조직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하드웨어가 마련된 만큼, 이에 걸맞은 소프트웨어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조직개편과 정기인사 시행일인 이날 모든 임원과 부서장·팀장 등 350여명이 참석한 '새출발 결의대회'를 가졌다.

최 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인사·조직문화 ▲금융감독·검사제재 ▲금융소비자 권리 제고 등 금융감독 3대 핵심의지를 만들었고, 임원진 전원과 부서장 85%를 교체하는 등 조직개편과 정기인사를 마무리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금감원 임직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 금융시장과



최홍식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새출발 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와의 부단한 소통 등을 다짐하고 선서했다.

최 원장은 "금감원은 때로는 메스를 들어 금융회사의 환부를 도려내야 하고, 때로는 금융회사의 체질을 개선시키거나 원기회복을 도와야 한다"며 "빼어난 전문성을 토대로 과감하고 냉철하게 행동하자"고 말했다.

또 "끊임없이 움직이는 시장 한 가운데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는 비난과 직무유기라는 책임 추궁의 딜

레마를 오로지 전문가적 판단을 통해 극복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여론에 훑쓸리지 않는 당당한 권한 행사도 당부했다.

그는 "국민의 질타도, 언론의 지적도, 금융회사의 요청도 새겨 들어야하지만 외부의 입김에 지나치게 위축되고 있다"며 "감독당국으로서의 역할이 온전히 발휘되도록 원칙과 법규에 입각해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하자"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케이뱅크, 설연휴 비상근무체제 가동

계좌 개설 등 정상 서비스 제공

케이뱅크는 오는 15~18일 설날 연휴 기간 동안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인터넷 전문은행인 만큼 이번 설날 연휴에도 계좌 개설에서 대출까지 모든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케이뱅크는 일평균 7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조를 나눠 고객센터, 전산센터 등에서 24시간 근무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리스크관리·금융소비자보호 등 주요 부서별로 일별 담당 임직원을 지정해 해당일에는 자택 비상대기를 시행한다.

옥성환 케이뱅크 경영기획본부장은



케이뱅크 직원들이 설날 연휴를 앞두고 관제룸에서 실시간 뱅킹서비스를 점검하고 있다.

"100% 비대면 은행으로서 케이뱅크는 연휴기간에도 고객들에게 최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연휴 기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특이점이나 비상 상황 발생시 실시간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 선택 주유소 10% 할인 '신한카드 딥 오일' 출시

신한카드는 고객이 직접 고른 주유소에서 10% 할인 서비스를 주는 등 차량·편의점·커피·택시·영화 예매에서 월 최대 8만5000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신한카드 딥 오일'을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카드사 최초로 고객이 직접 정유사를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제공됐던 리터당 할인 서비스가 아닌 주유금액 기준의 10% 할인 혜택을 제공, 고객 이용 편의성을 증대했다. 연회비는 로컬(S&E) 1만원, 해외겸용(Master) 1만3000원이다.

/이봉준 기자 bj35sea@

## KEB하나은행 '글로벌 청년 인턴십' 실시

KEB하나은행은 국내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해외 일자리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글로벌 청년 인턴십 '(가칭) 하나로·세계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의 청년 글로벌 인턴십 '(가칭) 하나로·세계로 프로그램'은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하나금융그룹의 글로벌 전략 비전인 '익스팬딩 투 글로벌 40%' 달성을 위해 향후 성장성이 높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 배치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에 따라 이번 KEB하나은행의 청년 글로벌 인턴십을 통해 선발된 인턴십 참가자는 아시아 지역, 특히 인도네시아,

/김문호 기자 kmh@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 등에 집중 배치해 ▲실무 체험 ▲현지시장 조사 ▲현지진출 국내기업과 연계한 방문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글로벌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의 글로벌 인턴십은 2월 중 선발공고를 한 후 첫 참가자를 선발할 예정이며 2년 동안 상·하반기 각각 50명 씩 약 200여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 글로벌사업부 관계자는 "국내 청년들이 취업난에서 벗어나 글로벌 현장에서 이들의 진취적 정신, 적극적인 업무 태도, 뛰어난 적응 능력이 충분히 발휘 될 수 있도록 제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